



## 영성개발과 전도

*Spirituality Development and Evangelism*

임영효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 목 차

1. 서론 # 284
2. 영성개발의 의미 # 285
3. 영성개발의 요소들 # 287
4. 영성개발과 전도의 관계 # 297
5. 결론 # 311

## 영성개발과 전도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일반 대중들과 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복음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한 마디로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제대로의 영성개발을 통한 구성원들의 성숙한 영성형성에 주력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결과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나가는 일을 등한시 하고, 이 일에 실패하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가 전도에 장애물이 되어지므로 지속적이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아니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교회사역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재정립해 나가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영성개발의 의미와 영성개발의 요소들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영성개발이 전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관련된 성경본문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불가불리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교회사역에 있어서 숫자적인 목표가 최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된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성숙한 영성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교

회 구성원들의 영성개발을 교회사역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을 때에 비로소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을 효과적으로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영성개발이 교회사역의 최우선적인 사역이라는 당위성이 자리 잡고 있다.

### 주요어

영성개발, 전도, 대위임령, 영성형성, 생활전도, 제자양육, 그리스도를 본받음

**Abstract****Spirituality Development and Evangelism**

Prof. Dr. Young Hyo Im

Contemporary churches and Christians are criticized by the people that they fail in influencing the masses and society by the Gospel. Also, it is said that the biggest obstacle of evangelism is that the nominal Christians who are not living like Jesus are being massproduced.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it is that today's churches do not devote themselves to the formation of mature spirituality for its members as the early church did.

Most churches make too much of the numerical church growth. And they neglect the ministry of equipping their members as mature disciples of Jesus. As a result of this, they could not show a beautiful image of the bride of Christ to the world. Eventually, they themselves became obstacles of evangelism and could not bear abundant fruit of evangelism continually.

In order not to repeat this vicious circuit, today's churches should go back to the basic and reestablish the priority order of church ministry to build up a healthy faith community. This is an urgent task for the contemporary churches.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is issue and attempt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pirituality development and the

elements of spirituality development on the biblical bases. Also, this paper tries to show that spirituality development brings an absolute influence to evangelism by consulting verses of the Scripture which are connected to this issue.

In conclusion, numerical goal in church ministry should not be top priority, but bringing church members to the level of mature spirituality should be top priority. If today's churches make spirituality development of their church members top priority, then they will achieve the Great commission effectively. Here, the recognition that spirituality development is churches' top priority lies.

**Keywords**

spirituality development, evangelism, the Great commission, formation of spirituality, life-style evangelism, nurturing of disciple, imitation of Christ

## 1. 서론 (Introduction)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비평의 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대의 일반 대중들과 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영성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아주 빈번하게 신앙은 참으로 서글포게도 대중들의 인격변화를 이루는데 실패해 왔다. 그 까닭은 대체로 제자도가 따르지 못했고, 그리스도 자신이 실천하신 것과 같은 종합적인 삶의 훈련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1)</sup> 로잔 세계복음화운동의 신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는 “복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은 우리 내부에 있다. 즉 부정직과 탐욕, 성공지향주의와 맘모니즘 등이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

\* 임영효 교수는 고신대학교 및 동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학위 취득,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신학석사(Th.M.), 선교학 전공으로 선교학 박사(D.Miss.),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의 기초에 관한 선교학적 연구'로 선교신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Ph.D.)학위 수여받음.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실천신학 및 선교학 담당교수인 동시에 고신대학교 선교목회 대학원에서 교회성장학 주임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쿰란출판사), 『성경교사와 설교자를 위한 테살로니가전서 강해연구』(도서출판 영문), 『건강한 교회, 행복한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사역자』(도서출판 영문), 『유다서 강해와 설교』(도서출판 영문),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도서출판 영문), 『신약성경 핵심 가이드』(도서출판 영문), 논문으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부흥」, 「선교와 교회성장의 원천으로서의 부흥(영문)」,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요인」, 「바울의 선교사역에 대한 고찰」,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대한 고찰」,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원리」, 「효과적인 사역의 모델로서의 탐사역에 관한 연구」, 「영적 지도력과 사역개발」, 「문화적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영성개발과 교회성장」 등 다수가 있다. yhim@kosin.ac.kr

\*\* 본 논문은 2009년도 고신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 Dallas Willard,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Understanding How God Changes Live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88), p. 221.

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가치를 가로막는 요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기독교인들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2)</sup>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한 마디로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제대로의 영성개발을 통한 구성원들의 성숙한 영성형성에 주력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결과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나가는 일을 등한시하고, 이 일에 실패하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가 전도에 장애물이 되어지므로 지속적이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아니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교회사역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재정립해 나가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영성개발의 의미와 영성개발의 요소들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영성개발이 전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이 두 가지 요소가 불가불리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한다.

## 2. 영성개발의 의미(Meaning of Spirituality Development)

2) 국민일보, 2009년 6월 12일자 신문 인터뷰 기사.

미국의 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영성훈련”을 강의하고 있는 게리 토마스(Gary Thomas)는 “영성이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난 내적 성품과 행동이다”라고 말하면서 “회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둔 영성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과 동행하면 그 분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영성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영성개발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sup>3)</sup>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이란 성령의 주도로 인간 자아의 내면세계가 개발되며 그리스도 자신의 내면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 기독교 영성개발의 초점은 전적으로 예수께 있다. 목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갈 4:19)이야말로 기독교 영성개발의 영원한 표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4)</sup>

이 영성개발을 성경적인 용어로 정의한다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딤후 4:7),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벧후 1:4),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벧후 3:18) 등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영성개발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런 영성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 3. 영성개발의 요소들 (Elements of Spirituality Development)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영성개발은 수동적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에 바탕을 둔 인간의 노력도 물론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내면은 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영성개발에는 인간적인 차원과 신적인 차원이 함께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다.<sup>5)</sup>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의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과 측도가 되어지고 있는 성경에 근거하여 고찰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에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8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나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나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살전 1:6-8)

3) Gary Thomas, *The Glorious Pursuit* (내이드림의 영성), 윤종석 역, CUP, 2009, p. 23.

4) Dallas Willard, *Renovation of the Heart* (마음의 혁신), 윤종석 역, 복있는 사람, 2003, pp. 36, 37.

5) Dallas Willard, *Renovation of the Heart* (마음의 혁신), 윤종석 역, 복있는 사람, 2003, p. 37.

데살로니가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후 50년에서 52년에 행한 제 2차 선교여행 과정에서 빌립보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 지역에 개척 설립된 교회로서 영성개발의 측면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 서신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다. 놀라운 것은,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료 사역자들의 체류기간이 최단 3주간에서 최장 6개월 정도의 단기간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이교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성숙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결과가 주어진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살전 1장 6-8까지에서 언급하게 되어진 것이다. 본문이 보여주는 영성개발의 요소들은 3가지인데, ① 많은 환란 ② 도(말씀) ③ 성령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많은 환란(Severe Sufferings): 부정적인 요인  
(Negative Factor)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고난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의 “많은 환란”은 “크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경 신학자 레온 모리스(Leon Morris)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환난이란 말은 원어성경 밖에서는 보통 문자 그대로 압박을 가리키는데 그것도 아주 혹독한 압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그 말의 동사형은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가 으개지기까지 포도를 누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그 동사는 비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의미하게 된다. 신약에서 명사형은 주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다. 그것은 약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 크고 쓰라린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sup>6)</sup>

브루스(F. F. Bruce)는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증거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sup>7)</sup> 이와 같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도구이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방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요 15:2, 롬 5:3-5, 고후 1:8-9, 벧전 1:7, 히 5:8, 약 1:12, 욥 42:5-6, 시 119:67, 71).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주님 때문에 당하게 되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영성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체험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패커(J. I. Packer)는 “고난은 모든 신자들에게 의해서 예외 없이 기대되어야 하고, 소중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8)</sup>

오늘날의 영성신학자들이 열거하고 있는 영성개발의 요소들 가운데서, 이 고난의 영역에는 금식의 훈련, 고독의 훈련, 침묵의 훈련, 검약의 훈련, 은밀성의 훈련, 희생의 훈련, 종의 훈련 등이 포함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sup>9)</sup>

6) Leon Morri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1959), pp. 58-59.

7) F. F. Bruce, *1&2 Thessalon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Tex.: Word Books, 1982), p. 74.

8) J. I. Packer, *Rediscovering Holiness*, (Ann Arbor, Michigan: Servant Publications, 1992), p. 251.

9) 리처드 포스터(Richard J. Foster)는 그가 쓴 “*Celebration of Discipline*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역, 생명의 말씀사”에서 영성개발을 위한 내적 훈련으로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학습의 훈련을, 외적 훈련으로 단순성의 훈련, 홀로 있기의 훈련, 종의 훈련, 봉사의 훈련을, 단계 훈련으로 고백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찬양의 훈련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그가 쓴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에서 절제의 훈련으로 독거, 침묵, 금식, 검약, 순결, 입이 무거움(은밀성), 희생을, 참여의 훈련으로 성경 연구, 예배, 찬양, 봉사, 기도, 친교, 죄고백, 복종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성개발의 요소들은 살전 1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성개발의 3대 요소들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것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 도(말씀, The Word): 주된 요인(Prime Factor)

본문의 “도”는 원문에 “그 말씀”으로 되어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를 의미한다. 본문에서 “도를 받아”에 사용된 동사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자발적으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막 10:15과 행 17:11과 살전 2:13에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영성개발의 주된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영성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고 있다(시 119:103, 127, 131, 143).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굳게 세워 가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행 10:44, 11:15, 20:32, 벤전 1:23, 2:1-2). 미국의 조직신학자 R. C. 스프롤(R. C. Sproul)은 “영혼의 양육을 위해서는 먼저 영혼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우선적으로 영혼에게 주목해야 한다. ...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체험의 더 깊은 수준에 이르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 ... 진정한 제자들은 성경에 조금 손을 대거나 이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진정한 제자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영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말씀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sup>10)</sup>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묵상의 중요성에 관하여, 영국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은 “묵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장하지 않은 군인이나 연장없는 묵수와 같다. 묵상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을

것이다. 즉, 마음은 완악하고 기억력은 믿을 수 없으며, 묵상이 없어서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묵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sup>11)</sup> 특히, 영국 청교도 시대의 뛰어난 영성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묵상에 열중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청교도들의 묵상은 은혜의 특별한 수단 그 이상이다. 그것은 청교도들의 경건을 위한 포괄적인 방법이었다.”<sup>12)</sup> 이와 같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므로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성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영성개발의 주된 요소인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날의 영성 신학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영성개발의 요소들 중, 묵상의 훈련, 학습의 훈련, 성경 연구 등이 여기에 속한 것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성령의 기쁨(The Joy of the Holy Spirit): 적극적인 요인 (Positive Factor)

이 세 번째 요인에 대하여, 토마스 칸스터블(Thomas L. Constable)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시련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안락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 그들의 기쁨의 근원은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10) R. C. Sproul, *The Soul's Quest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 김진우 역, 생명의 말씀사, 1962, pp. 147, 148, 151.

11) Joseph A. Pipa, Jr., and J. Andrew Wortman, *Reformed Spirituality (성경이 말하는 영성)*, 이운연, 서성훈 역, 도서출판 진리의 것밭, 2006, p. 167.

12) Joseph A. Pipa, Jr., and J. Andrew Wortman, *Reformed Spirituality (성경이 말하는 영성)*, 이운연, 서성훈 역, 도서출판 진리의 것밭, 2006, p. 195.

었다.”<sup>13)</sup>

세계적인 복음주의 조직신학자 J. I. 패커(Packer)는 “기쁨은 만족스러운 삶의 핵심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여 놓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 그러므로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 준비의 일환으로 기쁨의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sup>14)</sup> “주 안에서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기쁨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이 기쁨이 성숙한 영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역설하고 있다.<sup>15)</sup>

무엇보다도, 본문의 성령의 기쁨은 ① 고차원적인 영적인 기쁨이고(행 13:52, 벧전 1:8), ② 하늘로서 내려오는 기쁨이며(행 8:8, 롬 15:13, 시 30:5), ③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고(눅 10:21, 롬 14:17), ④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며(요 16:22), ⑤ 더 유익할 것을 아는 기쁨이다(롬 5:3-4). 이런 참된 기쁨이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고(살전 1:3),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궁핍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자원하여 넘치도록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고후 8:1-3), 극심한 핍박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은 절망을 치료하는 해독제이고 진정한 감사의 원천이다”라고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sup>16)</sup>

오늘날의 영성 신학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영성개발의 요소들

가운데, 본문에서의 영성개발의 적극적인 요소인 성령의 기쁨과 관련이 있는 것은 기도의 훈련, 단순성의 훈련, 고백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찬양의 훈련, 친교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영성개발의 요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진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는데, 본문은 다음 3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다.

#### (1) 사도들과 주를 본받은 자가 됨(살전 1:6하반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영성형성은 우선은 눈에 보이는 인도자들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깊은 영성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영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본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영성형성에 있어서 앞선 자들의 역할과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이들은 주님을 본받는 영성개발의 목표지점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본문에서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① 거룩함(벧전 1:15-16)과 ② 사랑(마 5:43-48, 눅 6:36, 요 13:34, 15:12). ③ 고난(마 16:24-25, 막 10:38-39, 눅 14:27, 요 15:18-20, 벧전 2:18-21)의 영역에서 주님을 닮게 되어졌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영역에 관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거룩함에 관해서는 3:13, 4:3,7, 사랑에 관해서는 3:12, 4:9-10 그리고 고난에 관해서는 2:14, 3:2-4에서 언급되고 있다.<sup>17)</sup> 그러므

13) Thomas L. Constable,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1 Thessalonians, 2 Thessalonians, 1 Timothy, 2 Timothy*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김운성 역, 도서출판 두란노, 1988, p. 26.

14) J. I. Packer, *God's Plans for You*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정옥배 역, 두란노, 2002, p. 158.

15) op. cit., p. 159.

16) Dallas Willard,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Understanding How God Changes Live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88), p. 179.

17) Robert L. Thomas, *1 Thessalonian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Edited by Frank E. Gaebelin, (Grand Rapids: Zondervan Pub., 1978), Vol. 11, p. 245.



로 주를 본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이며(빌 2:5),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갈 5:22-23). 그레이엄 톰린(Graham Tomlin)은 “회중을 더 이상 인격적인 변화, 혹은 성숙의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여긴다면 저들은 결코 전심으로 전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영적 성장과 성숙으로부터 전도를 분리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이다. 그들은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의존적이다”라고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sup>18)</sup>

### (2) 주변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짐(살전 1:7)

본문 7절에 “마게도나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처라”는 언급은 이들의 성숙한 영성이 주변지역의 다른 신자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이 어떤 다른 교회에도 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최상급의 인정이요 칭찬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 탁월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서신이 기록된 이후 약 7년이 지난 후인 주후 57년에 기록된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나인들 즉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어려운 중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넘치는 헌금을 하였던 것을 여전히 칭찬하였던 것을 볼 때 참으로 이들은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들이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레이엄 톰린

(Graham Tomlin)은 “교회나 혹은 그리스도인 신앙에 무엇인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전적이며 매력적인 것이 없다면, 모든 전도의 노력은 소귀에 경 읽는 식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sup>19)</sup>

### (3)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이루어짐(살전 1:8)

본문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나와 아가야에 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는 언급은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의 성숙한 영성은 마침내 복음전도의 영역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증거해 주고 있다.

본문에 “들렸다”는 단어인 “엑세케타이”는 우뢰 소리나 강한 트럼펫 소리처럼 영향력이 크고, 효과적인 전도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가져오고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에드먼드 히버트(D. Edmond Hiebert)는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의 복음전도는 “활기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the result of vital Christian living)”였음을 말하고 있고,<sup>20)</sup> 토마스 칸스터블(Thomas L. Constable)은 이들의 전도는 조직화된 복음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변화된 개인들의 인격적인 삶과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전도였음을 언급하고 있다.<sup>21)</sup>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삶,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삶,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 충만한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활전도(Life-Style Evangelism)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전도화 분야의 교수였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나는

18) Graham Tomlin, *The Provocative Church* (매력적인 교회), 주상지 역, 서로사랑, 2008, p. 167.

19) Graham Tomlin, *The Provocative Church* (매력적인 교회), 주상지 역, 서로사랑, 2008, p. 29.

20) D. Edmond Hiebert, *1&2 Thessalonians*, (Chicago: Moody Press, 1992), p. 67.

21) Thomas L. Constable, op. cit., p. 27.

성령께서 복음전도를 하시는 중요한 방법들 중의 하나가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감동력을 통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강력한 복음전도자에 의해 그리스도께로 내 물러지는 것보다는 기쁨에 가득찬 거룩한 공동체에 의해 더 자주 그리스도께 끌린다"라고 말한바 있다.<sup>22)</sup>

강해 설교자 맥크라켄(A. Maclaren) 역시 "본문 8절의 말씀은 여기저기 떠돌고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조용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도 크게 들렸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발견한 구주에 대해 입을 벌려 말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말이 적고 행함이 앞설 때 하나님의 교회의 증거는 더욱 크게 들리게 되리라는 것이다. ...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며, 그 분이 우리를 통하여 나팔을 부시도록 하라"고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순결하고 일관성 있는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3)</sup>

본문 8절에 "각처에 퍼졌다"는 것은 최소한 팔레스타인과 수리아와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sup>24)</sup> 서쪽으로는 육로로 로마까지, 동쪽으로는 해로로 에베소까지 알려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sup>25)</sup> 따라서 이들이야 말로 로마제국 전역에 걸쳐

22) Michael Green, *Evangelism through the Local Church: A Comprehensive Guide to All Aspects of Evangelism*, (Nashville, Tenn.: Oliver-Nelson Books, 1990), p. 397.

23) Joseph S. Exell, *The Biblical Illustrator*, Vol. 20,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p. 32.

24) William Hendriksen, *1&2 Thessalonian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55), p. 53.

25) John Stott, *The Gospel & the End of Time: The Message of 1&2 Thessalonian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1), p. 37.

서 선교와 복음전도의 사명을 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영국의 주경신학자 브루스(F. F. Bruce)는 8절의 의미에 대하여 "그들은 말씀과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 주었다. 처음부터 그들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라고 적절히 요약해 주고 있다.<sup>26)</sup>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강력한 전도는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일관된 복음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 4. 영성개발과 전도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Development and Evangelism)

영성개발과 전도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영성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 결과로 지속적인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들이 보여주고 있다:

(1) 골 1:6 -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존 맥아더(John MacArthur)는 이 본문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복음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증가한다. ... 복음은 개인의 내적

26) F. F. Bruce, *1&2 Thessalon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Tex.: Word Books, 1982), p. 16.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외적 성장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는다. 이 두 개념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께로 새로운 회심자들을 얻는데 이르게 되어진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패턴이었다. ... 따라서 복음이 개인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감에 따라 복음의 영향은 확대되어진다.<sup>27)</sup>

커티스 보온(Curtis Vaughan)은 “[본문에서의] ‘자라는도다’라는 단어는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어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열매를 맺어’와 ‘자라는도다’라는 두 용어는 각기 복음의 내적 활동(inner working)과 외적 팽창(outward extension)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다.<sup>28)</sup> 피터 T. 오브라이언(Peter T. O'Brien)도 본문에서의 열매 맺음은 좋은 행실의 열매(a crop of good deeds)로, 복음의 성장은 회심자들의 증가하는 수(the increasing number of converts)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29)</sup>

본문에서의 열매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중생과 칭의, 더 나아가 성화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영성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음의 내적 활동으로 인한 개인적 변화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본문에서의 자라남은 복음의 외적 확장 즉 전도를 위한 회심자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본문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개인의 성품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내적 성장인 영성개발이 이루어질 때에 전도의 지속적인 결실인 외적 성장을 이루게 되어짐을 가르쳐주고 있다. 원문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는다는 단어와 자라남이라는 단어가 모두 현재 분사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영성개발과 전도는 지속

적이고 발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성개발과 전도의 두 사이클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짐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가 초대 교회 신자들의 삶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글로버(R. H. Glover)는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사도 시대 말엽, 당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총 수는 거의 50만에 육박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sup>30)</sup> 따라서 허버트 카슨(Herbert M. Carson)이 언급한 대로 “대체적으로 복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그 복음이 한 개인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가능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그러므로 이 열매는 개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갈 5:22-23)과 의의 열매(빌 1:11)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들(골 1:4-5)로서 개인의 영적 성숙의 구체적인 표식들인 것이다.

## (2) 행 2:47 -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 충만의 결과로 형성되어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구원자들의 성숙한 영성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전도의 풍성한 결실이었음을 누가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2-46절까지의 본문은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의 영성의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말씀의 양육(42절), 사랑의 실천(44-45절), 교제(42절), 예배(42, 46-47절)가 그 중요 요소들을 밝혀주고 있다.

27) John MacArthu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Colossians & Philemon*, (Chicago: Moody Press, 1992), p. 22.

28) Curtis Vaugha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Ephesians - Philemon)*, Vol. 11., (Grand Rapids: Zondervan Pub., 1978), p. 175.

29) Peter T. O'Brien, *Word Biblical Commentary: Colossians, Philemon*,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2), p. 13.

30) William Hendriksen, *A Commentary on Colossians & Philemon*,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4), p. 51.

31) Herbert M. Cars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Colossians and Philemon: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ondon: The Tyndale Press, 1960), p. 33.

이러한 요소들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들의 영성개발의 결과로 경건한 경외심(행 2:43)과 영적인 기쁨(행 2:46)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으며, 일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성숙한 인격과 탁월한 도덕성을 지닐 수 있게 되어졌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복음 진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참된 전도는 영성개발에 초점을 맞춘 건강한 교회생활에서 유래되어짐을 깨우쳐 주고 있다.

그래서 네델란드의 선교신학자 베르카일(J. Verkuyl)은 “1세기 기독교의 경이적인 확장은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군중들 가운데서 나타내 보였던 기독교인들의 매력적인 삶의 방식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는데<sup>32)</sup> 이것은 초대교회의 경이적인 수적인 성장은 그 구성원들의 뛰어난 영성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에게 그 삶을 통해서 생활전도(Life-Style Evangelism)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다.

**(3) 행 9:31 -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경신학자 사이먼 J. 키스터메이커(Simon J. Kistemak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누가는 [수적인] 증가의 2가지 이유를 언급한다. 첫째로, 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즉, 그들은 그들의 매일의 행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를 그들의 구주와 주로 경외하고 존중했다. 둘째로, 그들은 성령의 위로를 경험했다. 요컨대, 이 초기 신자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나타내 보였다. 그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그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진리에 끌어들이었다.”<sup>33)</sup>

다시 말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의 통치와 그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충만함 가운데 풍성한 위로를 체험하는 성숙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캠벨 몰간(Campbell G. Morgan)은 “이처럼 교회는 풍성한 능력으로 진행했으며, 교회의 생명의 두 사실들인 예수의 주 되심을 믿는 것과 성령의 위로와 권능으로 인하여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적절히 말해 주고 있다.<sup>34)</sup>

더욱이, 본문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고 하는 것은 박해와 고난이 없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는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을 체험하므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졌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성경은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약 1:2-4, 벧전 1:6-7). 이처럼, 고난은 정결을 위한 방편이며,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에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영적으

33) Simon J. Kistemaker,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p. 356.

34) Campbell G. Morgan, *The Acts of the Apostle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24), p. 253.

32) J. Verkuyl, *Contemporary Missiology: An Introduction*, Translated and edited by Dale Cooper, (Grand Rapids: Eerdmans, 1978), p. 333.

로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주께로 끌게 되어지므로 영혼 구령의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우쳐 주고 있다.

또한 본문에서 “튼튼히 서가고”라는 표현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말씀의 양육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적으로 강하여지는 영성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삶이 강건해 지고 풍성해질 때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 역시 교회의 구성원들의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의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

#### (4) 행 11:24 -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설립된 안디옥교회의 첫 번째 사역자였던 바나바의 영적 특징에 대하여 높은 인정과 칭찬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나바에게 붙여진 수식어는 스테반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바나바는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행 6:5, 7:55).

이 구절에 대해 키스터메이커(Kistemaker)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바나바에게 적용된 형용사 ‘선한(αγαθος)’이라는 단어는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가리킨다. 누가는 바나바가 신뢰할 만한 성품을 지니고, 건전하고, 능력이 있으며,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선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바나바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를 가지면서 살았다(요일 1:3). 성령의 임재와 예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그로 하여금 평온한 안정감, 그의 동료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주의 일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가지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수적으로 증가하였다.”<sup>35)</sup>

존 B. 폴힐(John B. Polhill)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서 요구되고 있다.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며, 중개자들(go-betweens)로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쓴다”고 바나바가 성숙한 영성의 소유자였음을 언급하였다.<sup>36)</sup> 따라서, 이 본문이야말로 한 개인의 뛰어난 영성이 가져다 준 엄청난 결과가 바로 지속적인 전도의 열매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 (5) 행 19:9-10 -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체계적인 제자양육사역을 실행하므로 성숙한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배출해 내었던 가장 성공적인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키스터메이커(Kistemaker)는 “에베소에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신학교를 개설했다 ... 우리는 바울에 의해 훈련된 신학생들이 서부 소아시아에서 발전하고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들 제자들은 유대인과

35) Kistemaker, op. cit., p. 421.

36) John B. Polhil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Acts*, Vol. 26., (Nashville, Tenn.: Broadman Press, 1992), p. 272.

헬라인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즉,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였다”고 말하고 있다.<sup>37)</sup> 브루스(F. F. Bruce)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동안, 많은 그의 동역자들은 주변 도시들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38)</sup>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양육 사역의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아시아 전 지역에 설립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설립된 것이 바로 이 사역의 결과였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은 골로새의 ‘에바브라’는 그의 고향지역으로 되돌아가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에 세 교회들을 설립하여 사역하므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골 1:7-8; 4:12-16; 몬 23). 또한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던,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에바브라, 빌레몬, 아킵보 세 사람은 골로새 출신이었고, 두기오와 드로비모는 아시아 지방 출신이었는데 이들 모두는 바울의 선교사역에 참여하였던 것이다(행 20:4; 엡 6:21; 골 1:7; 4:12, 17; 몬 1-2).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제자양육사역을 통한 성숙한 영성의 소유자들을 세워나간 결과로 에베소 교회는 경이적인 질적 양적 성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는데, 내적으로는 마술과 혼합주의(magic and syncretism)를 정화할 수 있었고(행 19:13-19), 외적으로는 아시아의 모든 주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도의 결과가 나타나지게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행 19:9-10).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기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행 19:20)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6) 딤후 2:7-10 -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10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화시키는 복음의 영향력이 모든 그룹(노년층의 남자와 여자들, 젊은 여자와 남자들, 그리고 노예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쳐져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복음전도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교회 구성원들의 영성개발이 전도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즉,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위가 불신자들의 복음전도에 대한 반응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신앙에 적합한 행위를 시종일일하게 드러내는 삶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에 비난거리나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도움이 되어서므로 복음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행위들은 참으로 복음을 믿는 자의 삶 속에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됨을 강조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젊은 목회사역자인 디

37) Kistemaker op. cit., pp. 684-685.

38) F. F. Bruce, *The Book of Acts*, Revised Ed., (Grand Rapids: Eerdmans, 1988), p. 366.

도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딤후 2:7).

따라서 디도서 2장 1-10절에서 복음 제시가 복음에 합당한 삶과 더불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받은 교회 구성원들의 성숙한 영성형성과 전도의 성패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디도서 2장 5절의 “하나님의 말씀”과 10절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표현은 복음 메시지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 복음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의해 판단되어질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헤인 P. 그리핀(Hayne P. Griffin, Jr.)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적대적이고 잃어버린 세상에서 매일의 그리스도인 개인의 행동의 선교적인 측면들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불신자들에 대한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영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필연적으로 불신자들은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들의 삶에 의해서 그 복음메시지를 판단한다. ...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인식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에 관하여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좋은 구실을 불신자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sup>39)</sup> 테일러(T. Taylor)도 “실천 없는 선포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교(롬 2:24)를 모독하고 조롱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선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킨다”라고 적절히 경고해 주고 있다.<sup>40)</sup> 존 스토틀(John Stott) 역시 “기독교 교리는 구원의 교리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보석이다(10절).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그

보석을 변색시키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 구원의 훌륭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보석에 더욱 광택을 내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은 복음에 장식에 될 수도 있고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영성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sup>41)</sup> 이와 같이, 본문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이야말로 복음 메시지를 매력적이게 하고 빛나게 하므로(딤후 2:10),<sup>42)</sup> 지속적인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7) **벤전 3:15-16** -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 변호하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즉, 효과적인 전도의 선결조건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숙한 영성이 형성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적인 부분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의 원천이다(잠 4:23). 이 마음이 주님의 온전한

39) Thomas D. Lea and Hayne P. Griffin, Jr.,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2 Timothy, Titus*, Vol. 34., (Nashville, Tenn.: Broadman Press, 1992), p. 308.

40) T. Taylor, *Exposition of Titus*, (Minneapolis: Klock & Klock, reprint 1980), p. 276.

41) John Stott, *The Message of 1 Timothy & Titus* (디모테전서, 디도서 강해), 김현희 역, IVP, 1998, p. 266.

42) 디도서 2장 10절의 “빛나게 하다”는 “코스메오”라는 단어인데 보석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 그것들을 배열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서, 여기서 화장이나 화장품을 의미하는 코스메틱(cosmetic)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영성은 보석과도 같은 복음진리에 광택을 더하므로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통치를 받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전 삶을 그에게 헌신하게 되어지는 성숙한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므로 불신자들이나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변호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마 12:34). 따라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기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본문은 복음전도를 위하여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진 거듭난 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와 일관되게 살아감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성실함, 혹은 온전함을 가리킨다.”<sup>43)</sup>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숙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함을 암시해 주고 있으며, “선행”이라는 말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음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호와 증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켈리(J.N.D. Kelly)는 “만일 그들의 증언이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그들은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sup>44)</sup>

본문과 관련하여, 그레이엄 톰린(Graham Tomlin)은 다음과 같이 적절히 결론을 내리고 있다: “베드로의 첫 편지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전도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베드

로전서 3장 15절에서 흔히 생략하는 부분은 대답할 준비 이전에 오는 바로 첫 문장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이다. 이 말씀은 그 구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 즉 돈, 성, 권력, 시간, 영원에 대해 주님의 관점으로 사는 법을 배울 때, 그 그리스도인은 21세기 불신자 이웃의 마음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 깊고도 진실한 동정심, 사랑, 자비, 및 겸손으로 특정 지워진 공동체는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한 공동체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인도하여 왜 그러한가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 것이다. 교회가 진정 교회다울 때, 그 자체로 전도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 수년 동안 많은 전도자로서는 당황스럽게도,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 그것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전도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서신서의 초점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찮은 시기, 논쟁, 경쟁이 아니라 사랑, 자비, 및 거룩함으로 특정 지워진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맞추어진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전도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별되고도 도전적인 삶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우선순위를 묻는 것이 그릇된 것일 수도 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라서 살며 또한 이를 선포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전도와 관련이 있다.”<sup>45)</sup>

43) Bruce B. Barton, Mark Fackler, Linda K. Taylor, and Dave Veerman,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1 Peter, 2 Peter, Jude*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류호영 역,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8, p. 153.

44) J.N.D. Kelly, *A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eter and Jude*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김유배 역, 아가페 출판사, 1988, p. 185.

45) Graham Tomlin, op. cit., pp. 125, 126, 131.



(8) 유 20-23 -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활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공활히 여기라”

본문은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음전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어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 개인의 영성개발과 영적 성숙이 복음전도에 앞선다는 사실을 문맥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

본문 20절과 21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자기를 지키라”는 단 하나의 명령에 “건축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3개의 현재분사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20절과 21절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계속적으로 건축해야 하며, 둘째로,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셋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진리를 파수하고 효과적으로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회심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성숙과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해서 본문 20절과 21절의 내용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서게 되어질 때에 불신앙의 세상에서 죄의 유혹과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거나 아예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본문 22절과 23절이 시사해 주고 있다. 그 레이엄 톰린(Graham Tomlin)은 “교인의 영적, 인격적 성장을 교회 사역계획의 우선순위에 놓을 때 전도는 더욱 더 효과적이 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다.<sup>46)</sup> 즉, 성숙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질 때 증인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유다서 20-23절의 전후 문맥이 가르쳐 주고 있다.

## 5. 결론(Conclusion)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영성형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고난이나 성령의 기쁨과 같은 요소들이 동반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질 때에 가능한 것임을 바울의 초기서신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성경적인 영성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교회는 영성훈련의 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최우선적인 사역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본질적인 사역이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결과로 초대교회와 같은 전도의 지속적인 열매를 삶의 현장에서 풍성히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 관련 성경구절들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는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열매 맺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46) Graham Tomlin, op. cit., p. 163.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풍성히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전도를 지역교회의 일차목표로 삼는 것은 중대과오다.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총명하고 헌신된 제자가 아니며 전반적으로 그 길에 건설한 진보가 없는 경우라면 특히 더 그렇다. ... 가장 성공적인 전도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에 가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해주는 내면의 변화작업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sup>47)</sup> 그는 또한 “만약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면, 복음전도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때 지역교회는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밀려오는 지역 사람들을 위한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지역교회는 신약성경에 보여진 삶의 모든 측면들을 실천을 통하여 터득한 자들 밑에서 배우게 되는 삶의 학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당면한 목표로 삼을 때에 비로소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을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sup>48)</sup>

이와 같이, 가장 성공적인 전도사역과 진정한 교회성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는 내면의 변화작업인 영성개발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게 되어지므로 교회사역에 있어서 숫자적인 목표가 최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된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성숙한 영성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사역자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못할 때 결결

로 벗어나 소금과 빛으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실패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영성개발이 교회사역의 최우선적인 사역이라는 당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 참고도서

- Barton, Bruce B., Mark Fackler, Linda K. Taylor, and Dave Veerman.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1 Peter, 2 Peter, Jude*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류호영 역,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8.
- Bruce, F. F. *1&2 Thessalon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Tex.: Word Books, 1982.
- Bruce, F. F. *The Book of Acts*. Revised Ed., Grand Rapids: Eerdmans, 1988.
- Carson, Herbert M. *The Epistles of Paul to the Colossians and Philemon: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ondon: The Tyndale Press, 1960.
- Constable, Thomas L.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1 Thessalonians, 2 Thessalonians, 1 Timothy, 2 Timothy* (테살로니가전후서, 디모테전후서). 김운성 역, 도서출판 두란노, 1988.
- Exell, Joseph S. *The Biblical Illustrator*. Vol. 20,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 Foster, Richard J. *Celebration of Discipline*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역, 생명의 말씀사, 1986.
- Green, Michael. *Evangelism through the Local Church: A Comprehensive Guide to All Aspects of Evangelism*. Nashville, Tenn.: Oliver-Nelson Books, 1990.
- Hendriksen, William. *1&2 Thessalonian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55.
- \_\_\_\_\_. *A Commentary on Colossians & Philemon*.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4.
- Hiebert, D. Edmond. *1&2 Thessalonians*. Chicago: Moody Press, 1992.
- Kelly, J.N.D. *A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eter and Jude*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김유배 역, 아가페 출판사, 1988.

47) Dallas Willard, *Renovation of the Heart* (마음의 혁신), 윤종석 역, 복있는 사람, 2003, p. 415.

48) Dallas Willard,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Understanding How God Changes Live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88), p. 247.

- Kistemaker, Simon J.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 Lea, Thomas D., and Hayne P. Griffin, Jr.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2 Timothy, Titus*. Vol. 34, Nashville, Tenn.: Broadman Press, 1992.
- MacArthur, John.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Colossians & Philemon*. Chicago: Moody Press, 1992.
- Morgan, Campbell G. *The Acts of the Apostle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24.
- Morris, Leo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1959.
- O'Brien, Peter T. *Word Biblical Commentary: Colossians, Philemon*.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2.
- Packer, J. I. *Rediscovering Holiness*. Ann Arbor, Michigan: Servant Publications, 1992.
- \_\_\_\_\_. *God's Plans for You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정옥배 역, 두란노, 2002.
- Pipa, Jr. Joseph A., and J. Andrew Wortman. *Reformed Spirituality (성경이 말하는 영성)*. 이운연, 서성훈 역, 도서출판 진리의 깃발, 2006.
- Polhill, John B. *The New American Commentary: Acts*. Vol. 26., Nashville, Tenn.: Broadman Press, 1992.
- Sproul, R. C. *The Soul's Quest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 김진우 역, 생명의 말씀사, 1962.
- Stott, John. *The Gospel & the End of Time: The Message of 1&2 Thessalonian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1.
- \_\_\_\_\_. *The Message of 1 Timothy & Titus (디모테전서, 디도서 강해)*. 김현희 역, IVP, 1998.
- Taylor, T. *Exposition of Titus*. Minneapolis: Klock & Klock, reprint, 1980.
- Thomas, Gary. *The Glorious Pursuit (내어드림의 영성)*. 윤종석 역, CUP, 2009.
- Thomas, Robert L. *1 Thessalonian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Edited by Frank E. Gaebelein, Vol. 11., Grand Rapids: Zondervan Pub., 1978.
- Tomlin, Graham. *The Provocative Church (매력적인 교회)*. 주상지 역, 서로사랑, 2008.
- Vaughan, Curti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Ephesians - Philemon)*. Vol. 11., Grand Rapids: Zondervan Pub., 1978.
- Verkuyl, J. *Contemporary Missiology: An Introduction*. Translated and edited by Dale Cooper, Grand Rapids: Eerdmans, 1978.
- Willard, Dallas.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Understanding How God Changes Live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88.
- \_\_\_\_\_. *Renovation of the Heart (마음의 혁신)*. 윤종석 역, 복있는 사람, 2003.
- 국민일보, 2009년 6월 12일자 신문 인터뷰 기사.